

大學의 兩價性에 대하여



忠北大 總長 李 澤 遠

明나라 중기의 거유 王陽明은 사생 문제에 심각한 번민을 거듭하던 어느날 밤, 格物致知의 뜻을 깨달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踴躍歡呼하였다. 종래에는 物과 心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心을 떠나서 物이 없고 物을 떠나서 心이 없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원리에 따라 知와 行은 분리할 수 없으며, 무릇 알고 행하지 못함은 오직 알지 못한 때문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되며, 知의 眞切篤實處가 곧 行이고, 行의 明覺精密處가 곧 知라 하였다. 이러한 知行合一의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인정되어 왔거니와, 송나라의 정이천과 소크라테스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계 이황이 수입된 「傳習錄」에 대하여 「傳習錄辨」을 써서 공박하였으므로 양명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다 한다.

굳이 이런 사상의 연원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앎과 행함의 괴리를 늘 겪어야 하는 대학의 兩價的 生理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올바르게 아는 것이 곧 올바르게 행하는 첫 걸음이요,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음은 올바르게 아는 것이니 앎과 행함의 일치란 그렇게 어렵지만도 앎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곤란한 사건 중에 많은 것들은 양가적 가치의 신격화 내지 극단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갈등이 대부분이다. 불과 물이 만나면 상극이라 하나, 불과 불이 만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상극이다. 극단은 극단으로 통하고 중용은 중용으로 통하기에,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넘나들기 쉽고 그것은 類類相通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많은 경우 極右에서 極左로, 거기서 또 다시 極右로 변신하는 사상의 곡예를 심심찮게 보아 왔다. 가장 자유로와야 할 대학의 독선은 극단과 극단의 부딪침 때문에 생겨난다. 더구나 그 독선의 극단화에 진리라는 거짓 의미가 가미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가속화된 정당성이 準이데올로기화 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면 앎 이전에 행함으로 합일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이전에 행한다는 것이 상위의 질서로 바뀐 꼴이다.

그러한 여러 독선 중 가장 그 폐해가 심각한 것이 保守와 進歩라는 상반되는 사이비 보수주의·사이비 진보주의다. 대학에서 절대화한 독선이라도 바람직한 면이 없지는 않다. 물론 그 경우에도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며, 독선의 그릇됨이 더 나은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포용력이 있는 것일 때라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독선이 아니라 견고한 진리일 터이다. 원래 대학은 다원적이며 상대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완결된 상태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知的 自由의 개방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유일한 독선을 압과 행함의 최상위 질서에 두는 독단주의자가 적지않다. 오로지 자신의 앎만이 유일하다는 독선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함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딱한 노릇이지만, 이런 경우 어떤 충고도 무용지물이다. 그것을 좋게 해석하여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신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딱한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독선은 지속적으로 재생된다. 즉, 보수의 독선이 진보의 독선을 낳고, 진보의 독선이 지적 자유를 가로막는다. 그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상황이 급박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가 어찌 명확히 구분될 것인가? 원래 대학은 進歩와 保守가 어우러져 있고 상대적 인식에 따라서 매우 진보적인 곳이 될 수도, 매우 보수적인 곳이 될 수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수적이고, 한편 진보적이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다. 여기서 진보란 ‘달도 차면 기울고(盈虛)’라는 식의 순환적 변화가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진전을 제시하려는 진보적 발전을 말하고, 보수란 무조건 옛 것을 고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화되고 확인된 진리를 쉽게 허물어뜨리지 않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변형이라 불러도 좋을 동·서 양 진영의 변화를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保守와 進歩라는 상반되는 태도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역전되는 묘한 현상이다. 똑같은 지혜와 행동이 어디에서는 保守가 되고 어디에서는 進歩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치 기준의 兩價性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런 것이 저기서는 저런 色即是空인, 인식 논리상 대단히 단순한 논법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질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대학의 학문적 검증을 거쳤거나, 적어도 인정을 받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며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한편, 현재의 모순을 修正해야 할 임무도 아울러 갖고 있는 셈이다. 단일성의 논리가 서로 밀고 당기는 二元的 兩價性을 존중함으로써 내적으로 분화되는 다양한 세계인 多價性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학인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평범한 사실이지만, 대학은 진보의 첨병인 동시에 보수적 성격인 진리의 수호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